

KIA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손익' 싸고 이견 팽팽

광주시-기아차 재협상 난항

기아차 "2년간 76억 손실"...시 "운영수익 더 클 것" 양측, 야구장 임대료 등 감정평가 토대 재협약 방침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운영 재협약 협상에 들어간 광주시와 기아자동차가 손익평가를 놓고 이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료 협상의 절대적 기준이 될 손익평가 기준을 놓고 사용료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할 시로서는 운영수익을, 기아 측은 손실을 무가하며서 좀처럼 협상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5일 기아 측이 최근 제출한 야구단·야구장 운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야구장에서 손실 27억9000만원, 야구단에

서 26억5500만원을 수익을 내면서 전체적으로 1억3500만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야구장 손실이 49억5000만원, 야구단 수익은 40억2100만원으로 8억8400만원 손실을 기록했다. 협상의 초점은 야구장 손익이다. 운영보고서에는 2년간 76억9500만원의 손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시는 입장료 수익을 모두 야구단으로만 귀속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입장료 수

입의 10%가량은 야구장 수입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이다. 이 부분에서는 양측 이견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전액 야구장 손실로 처리된 66억원의 개보수 비용 일부도 야구단으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외야석 팬스 등 광고 수익 산정에도 기아차 등 자사 광고 등 효과를 반영하면 수익은 더 커질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와 기아 측은 자사광고 효과, 야구장 명칭사용권, 기아 측이 사용하는 임대공간 비용, 임대시설 가운대 공실 비용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각각 의뢰했다. 감정평가 결과는 이달말께 또는 다음달 나올 것으로 보이며, 양측은 이 감정평가 자료 등을 토대로 손익평가위원회에서 야구장 운영 수입·지출을 확정하고 재협약 조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손익평가위는 광주시, 기아자동차, 한국야구위원회(KBO) 측 관계자 1명씩과 시와 기아차에서 추천한 회계전문가 1명씩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됐다. 광주시는 10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11~12월 재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챔피언스필드 신축 당시 기아차에 25년간 야구장 운영권, 광고권, 명칭사용권을 허가했다.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때 기아차가 300억원을 부담하면서 건립이 본격화할 수 있도록 한 대가 성격이었다. 300억원을 선납 받고 25년간 운영을 허가한 셈이지만 기아차에 지나친 특혜를 줬다는 여론이 일면서 운영 재협약 협상에 들어갔다. 야구장 건립에는 이 돈을 포함해 국비 298억원, 시비 395억7000만원 등 993억7000만원이 들어갔다. /최권일기자 cki@

챔스필드 '빛 공해'

조명탑 밝기 기준 2.4배 초과

광주-KIA 챔피언스필드의 조명탑 밝기가 환경부의 허용기준치를 최대 2.4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광주시와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야구장 인근에 위치한 한국아텔리움 1단지 아파트 2개동 4곳에서 조도를 측정한 결과 103동 10층의 경우 23.7룩스(Lx)로 환경부의 허용기준(10룩스)을 2.4배 초과했다. 같은 동 20층은 19.4룩스, 104동 20층과 10층도 각각 14.8룩스와 12.4룩스로 기준 이상으로 측정됐다. 광주시와 KIA타이거즈를 상대로 소송 피해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4월 광주시에 빛 공해 피해 민원과 함께 조도측정을 요구했고, 시는 야간경기가 열린 지난 14일 밤 조도를 측정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빛 공해 피해가 확인된 만큼 광주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필요한 경우 빛 공해 관련 민사소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지난 14일 오후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인근 광주 북구 임동의 한 아파트에서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야구장 조명의 빛 공해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조도를 측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ASEM 문화장관회의의 22일~24일 문화전당서

아셈(ASEM) 문화장관회의가 22일부터 24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이번 아셈 문화장관회의에는 태국·필리핀·그리스·폴란드 등 8개국 장관과 중국·일본·이탈리아·헝가리 등 11개국 차관을 포함한 40여 개국 대표단 200여 명이 참석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의장국의 자격으로 주최하는 제7차 아셈 회의에서는 참가국 대표들이 '문화와 창조경제'란 주제로 아래 '첨단기술과 창조산업의 미래', '전통문화유산과 창조경제', '창조산업과 국가간 협력'에 대해 분과별로 나눠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벌인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를 통해 특히 문

화콘텐츠 산업의 동반 발전을 위해 '아셈 창조산업 청년 리더십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한다.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 국가가 미래 문화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을 추천하고, 이들 청년은 서로 협업체 콘텐츠의 기획과 개발, 사업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네트워크는 프랑스·네덜란드 유럽 2개국과 한국 등 아시아 2~3개국으로 출발, 점차 다른 아셈 회원국으로 확산시킨다는

게 문제부의 계획이다. 네트워크의 사무국은 광주시에 둘 계획이라고 문제부는 설명했다. 또 김종덕 문제부 장관은 행사 마지막 날인 24일 의장 자격으로 의장명명서를 발표한. 성명서에는 아셈 회원국들이 문화와 창조경제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콘텐츠 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기기자 penfoot@

전남창조센터, 창조경제 요람 '톡톡'

농수산식품 107억 매출 성과 월빙관광 상품 17개 판로 지원 바이오 추출물 기업 6곳 육성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가 1년동안 GS 유통망 판로 지원을 통해 우수 농수산물과 월빙관광 상품 판매, 바이오 추출물 강소기업 육성 등의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혁신센터는 전남농산벤처창업, 월빙관광, 바이오화학 등 3대 분야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지난해 6월 출범했다. 분야별로 농수산물 벤처창업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9차례의 품평·상담회를 열어 지역 우수 농수산식품을 발굴하는 한편, GS유통망·GS리테일 등 GS유통망을 통한 판로 지원에 나서 59개 업체가 107억 원의 매출을 올리도록 지원했다. 농수산물 분야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 아카데미도 2차례 개최해 지금까지 6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이 가운데 20명은 농장 실습제를 실시해 생생한 현장 체험을 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기업 등 17개사를 발굴, 센터에 입주시켜 기술 및 판로 지원을 하는 등 스타트업 기업의 정착 및 성장을 돕고 있다. 월빙관광 분야에서는 전남의 청정 자연환경, 친환경 음식과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17개 월빙관광 상품

을 발굴, GS유통망을 통한 판로 지원에 나서 41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올해 5월 GS TV유통망을 통해 출시한 청산도 여행상품의 경우 1200롤이 접수돼 완판되는 등 지역 관광상품의 마케팅 성공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밖에도 6차산업과 연계한 관광상품 고품질화를 위해 40개 사 자문, 월빙관광 공모전 2회 개최, 6차산업 체험·관광 아카데미 개최 등의 활동을 펼쳤다. 바이오화학 생태계 조성 분야에선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6개 바이오 추출물 강소기업을 발굴해 기술과 판로 등 기업 애로사항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산 부산물에서 콜라겐을 추출해 상품화하는데 성공한 (주)마린테크노는 센터의 지원으로 올해 1월 크라우드펀딩 1호 기업에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미국 및 남미 순방 때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해 56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올 하반기 여수에 GS칼텍스의 바이오부탄올 데모플랜트가 착공되면 이와 관련한 전후방산업이 활성화돼 바이오화학 생태계 조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혁신센터는 올해 농수산물 판로 지원 150억원 달성 등을 목표로 지난 3월 설치한 고용준과 목포대 내 서부권상달실 활성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1주년 기념행사는 16일 오전 여수 예울마루에서 열린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제왕절개 입원 치료비

본인부담 5%로 낮춰

7월 이후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의 입원 치료비 부담이 지금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왕절개 분만을 하려면 자연분만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에 달했지만, 내달 이후 입원한 환자부터는 5%로 낮아진다. 특히 다음 달부터는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1종 의료급여 수급자뿐 아니라 2종 의료급여 수급자도 제왕절개 분만을 할 때 본인부담금 면제혜택을 받는다. 현재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제왕절개 분만 비용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연합뉴스

커피 '발암성 물질'서 제외

세계보건기구(WHO)가 커피를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서 25년 만에 제외한다고 월드트리거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15일 과학전문지 라이브트와 WSJ 등에 따르면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커피, 마테(중남미지역 카페인 함유 전통차), '매우 뜨거운 음료' 등의 발암성을 평가한 결과를 이르면 이날(현지 시간)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IARC는 그동안 여러 나라의 전문가 23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커피의 발암성과 관련한 공개 문헌 1000여 편을 철저히 검토했다. 이 결과 커피와 방광암 간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2B군 발암물질에서 제외되기로 했다. 앞서 IARC는 1990년 커피가 방광암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인체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인 '2B군' 물질로 분류했었다. /연합뉴스

사람찾음

성명: 박영옥 (여), 70살(1946년생)

- 실종시간: 5월 2일 저녁 9시 20분경 실종
- 서울 제일파크 아파트 집을 나설때 열린 보라색 상의 잠바와 옅은초록색바지를 입고 발색운동화를 착용.
- 신장 160cm, 왜소한 체격, 단발머리
- 전라도 말투.
- 초기 치매증상이 있음.

위 인상의 사람을 보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금 200만원

찾는이: 정영식 (010-4649-3683)

남·서동 제일파크 909호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며 **성적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천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을 지원합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혀 문외사건! 저명한 안내물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20년 전 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북구 임동 주택 건물27평 토지48평 일반상업지역 재개발예정지역. 투자최적 ▶ 감정이 9천9백만원
- 북구 두암동 근린주택 근린주택 건물7평 토지54평 코너위치 1층점포.2층주택 ▶ 감정이 2억2천 최저가 1억5천3백만원
- 광산구 월계동 6층상가건물중 6층 건물63평 토지18평 사무실,상가 ▶ 감정이 2억4천 최저가 1억8백(감정가의 45%)
- 북구 매곡동 4층근린시설 대지224평 대지382평 학원,병원추천 ▶ 감정이 12억2천 최저가 8억5천만원
- 서구 화정동 가스충전소 금호월드인근 건물142평 토지301평 투가가치우수 ▶ 최저가 17억1천만원

병원, 사옥, 상가, 대지, 창고부지 매매

- 나주시 다시면 창고 건물103평 토지281평 차량진입가능 창고상대양호 ▶ 감정이 1억2백만원 최저가 6천6백만원
- 북구 용봉동 3층원룸 9가구 전대생활관 인근 건물 69평 토지 47평 ▶ 감정이 2억6천 최저가 1억8천2백만원
- 담양읍 삼관리 전원주택마을입구 도로점 인야. 위치좋은 토지2730평 전원주택지 개발추천 ▶ 최저가 4억6천만원
- 함평군 나산면 담32평 마을입구 도로점 건축가능 주변환경양호 ▶ 최저가 1천5백만원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광주일보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4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하구독 (062)220-0550